

## 초등학교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탐구<sup>1)</sup>

이 정 희  
(대구교육대학교)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아동의 생활지도란 학교의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 각자의 개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조력활동이며, 개인이 보다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숙한 자기지도적인 능력의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발표된 생활지도와 관련된 많은 논문이나 보고서는 대부분이 아동을 고유한 개별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편리성, 효과,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인간 현상의 많은 부분들은 계량화 할 수 없는 현상들의 연속이다. 인간의 삶은 다분히 감성적, 심미적, 의미적, 도덕적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수량화하거나 계량화해 버린다면 인간 내면의 본질적 경험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구성된 의미에 의지해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지도라는 교육적 행위 역시 단순한 효과나 설명적 관점이 아니라 의미와 이해적 관점에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교사의 경험에 대한 인간학적인 탐구를 수행함으로써 생활지도의 본질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고 하였다.

---

1) 이 연구는 필자인 이정희의 석사 연구를 요약 정리한 것임

특히 이러한 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시도함에 있어서 연구자는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에 주목하게 되었다. 아마도 참교육 실현을 위한 꿈과 이상을 앞세워 교육에의 열정을 불태웠을 초임교사의 시절을 거쳐, 교사의 실천적 경험과 지식을 중심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아동의 생활지도에 임하게 되는 경력교사의 시절을 거쳐, 수십 년간의 교직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을 이해해보는 것은 생활지도의 실천성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 2. 연구자의 선입관

교육경력 16년차인 연구자는 올해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많아 가끔씩은 나의 본연의 업무가 행정주사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지 착각할 정도로 많은데 수업을 마친 오후에는 교재연구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처리 때문에 퇴근시간까지 바쁠 때가 많다. 거기에 학년 학예회도 전담인 내가 맡을 정도로 업무가 편중되는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곤 했다. 심지어 젊은 교사들 사이에는 원로교사들이 선호하는 저학년을 일부러 회피하는 경향까지 있을 정도이다. 반면에 맡은 업무가 별로 없어 퇴근시간을 기다리며 오후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원로교사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도 하고 너무 정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다. 또한 급식시간이나 우연히 교실을 지나치다가 목격하게 되는 원로교사들의 생활지도는 30년 이상을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쌓인 풍부한 노하우가 묻어 난다기 보다는 ‘지금 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아이들을 저런 식으로 다루시나, 저건 아니야.’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생활지도 모습에 적잖은 실망을 가질 때도 많았다. 물론 자신의 긴 교육여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묵묵히 ‘아이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원로교사도 많은 것을 안다. 하지만 연구자의 의식 속에 먼저 떠오르는 원로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자랑스럽거나 희망찬 것은 아니다. 정채되어 있으며 새로운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자는 그동안 본인이 형성해 온 원로교사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고스란히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힘썼다. 원로교사가 아동을 생활지도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그 맥락적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교육종사자인 교사와 연구자들에게 생활지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 연구자의 순전한 바램이다.

## 3. 연구문제

해석학적 연구는 연구자의 선입관이 고착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래서 연구문제는 지

나치게 구체적이거나 특정 방향으로만 지향하는 것이 아닌 열린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이란 어떤 것인가?’를 연구문제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 가. 초등학교 원로교사가 가진 생활지도의 개념은 무엇인가?
- 나. 초등학교 원로교사가 생각하는 생활지도 영역과 내용은 어떤 것인가?
- 다. 초등학교 원로교사가 생각하는 생활지도 방법은 어떤 것인가?
- 라. 초등학교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은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이것은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II. 연구방법: 해석학적 탐구

해석학(hermeneutics)은 우리의 삶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학문이다. 해석학적 탐구는 교육과 그 실천과 관련하여 관계적 삶의 의미를 다양화 할 수 있고 심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종사자들의 교육적 실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의 의미를 해석학적 방법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 생활지도의 주요한 배경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교사를 삶의 주체자로 이해하고 해석해 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수량적 연구 접근의 방법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은 해석학적 탐구의 중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아동을 생활지도 하면서 경험하는 의미와 그 구조적 맥락을 탐구하여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OO초등학교 원로교사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7명의 원로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0년 이상의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을 이해해 보는 것은 교사들이나 연구자 모두에게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적 경험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 참여한 원로교사들의 일반적 경력사항이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개략적 특징

성 명	연령	성 별	교육경력
L. J. H	55	여	33
K. J. B	57	여	36
S. H. M	55	남	32
P. H. O	56	남	36
Y. J. H	56	남	36
C. S. W	57	남	35
G. O. G	57	남	36

## 2. 연구기간

초등학교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경험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면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Seidman(1998)이 제시한 심층 면접을 참고로 하여 2007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4회기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회기의 심층 면담은 40분-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 후 필요한 경우에 추가 질문이나 대화를 통하여 최대한 참여자의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 3. 연구절차

해석학적 탐구는 연구대상에게서 그 의미를 깊고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다면 형식이나 그 절차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래서 해석학적 텍스트는 연구자가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해석을 반영하는 잘 논의된 에세이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석학에서 말하는 연구절차는 하나의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생명력을 지니는 유기체처럼 자동조향하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Ellis(1998)의 연구절차를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 가. 연구문제 설정

연구자는 선정한 신념이나 가치를 증명하거나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열린 마음, 순전함, 그리고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순수한 학문적 동기와 가능성, 사회적 및 교육적 요구, 상황적 조건을 감안하여 연구문제를 선정한다.

#### 나. 자료수집

면접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료수집에서 연구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자신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순진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 다. 자료분석 및 텍스트 작성

해석학적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를 텍스트화 할 때에는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의 삶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나 일들을 선정하며 연구자의 의도, 견해, 초기의 개념이나 선입견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충분히 드러내 주어야 한다.

#### 라. 연구결과 및 보고서 정리

보고서 작성은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구자가 생각하는 가장 적합한 해석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써 나가면 될 것이다. 즉 연구자는 독자들이 자신의 견해와 상황에 근거해 그들 자신의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 Ⅲ. 초등학교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의 이해

#### 1. 생활지도의 개념

초등학교 아동의 생활지도는 유아나 중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그것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아동은 유아나 청소년과는 다른 독특한 발달특성과 아동기에 성취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오남·노명희·윤은중(2000)은 아동의 생활지도를 부모나 교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과 주위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기지도력을 발전시키며 아동 각자의 미래 준비와 자아실현을 원조하기 위하여 학문적 이론과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한 일련의 지속적인 조력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30년 이상을 교육활동에 전념하면서 아동들의 생활지도를 해 오고 있는 원로교사가 형성해온 생활지도란 무엇으로 정의 될 수 있을까라는 교육적 호기심을 가진 연구자는 일곱 분 원로교사와의 각 2차례의 심층면접을 하였고 그 면접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원로교사들이 인식하는 생활지도

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원로교사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일곱 분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개념은 크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배려와 지지활동,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지속적 조력활동, 통합적 성장을 위한 인격교육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원로교사가 형성해 온 생활지도 개념은 다소 학문적이고 이상적 수준의 개념 도출이 되기 쉬운 학자들에 비하여 아동들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성장 변화가 속속들이 눈에 띄는 교육현장에서 형성되어 온 다분히 경험적이고 맥락적인 생활지도 개념이라 할 수 있었다.

#### 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배려와 지지활동

Karylowski(1984)는 배려(concern)란 배려하려는 대상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상태, 필요, 감정에 의식적으로 주목하여 그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P교사는 생활지도란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신경을 써주고 배려하는 것, 더 나아가 아동들이 바르고 건전하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P교사: 네, 생활지도란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르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생활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내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내 관심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생활지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2007/09/11)

P교사는 초임시절에는 교사 자신의 입장에서 쏟아 붓는 식의 일방적인 보살핌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30여년이 지난 요즘에는 해마다 그 해 그 해 아동의 학년성과 특성 등을 먼저 살펴보고 이해를 한 후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지도를 하고 있었다. 아동의 필요를 고려한 배려와 보살핌 즉 아동의 입장에서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교육적 활동을 생활지도라고 정의하였다.

#### 나.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지속적 조력활동

기본생활습관이란 한 개인이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익혀서 습관화하는 것으로, 관습과 전통 속에서 계승된 사회규범과 원리에 따라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양식에 적응하며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교과지도를 할 때에도 기본생활습관을 아울러 지도하고 있으며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L교사는 생활지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L교사: 초임 때보다 더 기본생활습관을 강조하게 되네요. 복도통행, 실내정숙, 인사하기 등의 기본생활습관이나 예절에서부터 교우관계나 여가생활 등의 전반에 걸친 지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과 주변세계를 이해하고 원만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면접/2007/09/13)

L교사는 복도통행, 실내정숙, 인사하기 등의 기본생활습관이나 예절에서부터 교우관계나 여가생활 등의 전반에 걸친 지도를 통하여 아동들이 자기 자신과 주변세계를 이해하고 원만한 단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생활지도라는 말을 하였다.

#### 다. 통합적 성장을 위한 인격교육활동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은 인지발달적 접근법과 가치명료화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교육의 목표는 인격의 실현에 있었다. 이는 인격적 교육이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고 인격적 삶의 가치를 성찰하는데 그 근본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공부하면서 생활지도에 대한 생각이 확연하게 바뀌었다고 말하는 G교사는 생활지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G교사: 옛날에는 생활지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생활지도라 하면 무조건 때리는 걸로. 그런데 저는 상담교육을 받고는 생활지도에 대한 생각이나 방법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생활지도 특히 초등학교의 생활지도를 아이들이 바람직한 전인격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교사가 먼저 상담이나 관련 연수나 책을 많이 읽고 노력을 해야 되요. (면접/2007/09/18)

교과시간과 아울러 인성지도 등을 통하여 통합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 이라고 폭넓게 생각하고 지도하는 G교사는 아이들의 문화나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해 가는 요즘에는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적극적인 자세로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 일곱 분 원로교사들의 생활지도 개념을 분석해 볼 때 생활지도란 어느 특정 분야의 집중적인 지도라기보다는 아동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원로교사 개인에 따라 강조점은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원로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아동이 학교에 와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동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배려하고 조력하여 아동 각자가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끌어가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지지하는 것을 생활지도라 인식하고 있었다.

## 2. 생활지도의 영역과 내용

김현주(2002)는 아동들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생활지도의 영역을 기본생활습관지도, 인성지도, 생활예절지도, 도덕성지도, 자아개념지도, 건강 및 안전지도의 여섯 가지로 보았고, 김충기(2003)는 생활지도의 영역을 교육지도, 직업지도, 성격지도, 건강지도, 사회성지도, 여가선용지도, 도덕지도 및 종교지도로 구분하였고, 이재창(2005)은 생활지도의 영역을 학생이해활동, 정보활동, 상담활동, 진로지도 및 정치활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일곱 분의 원로교사들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하고 수차례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원로교사들은 30년 이상 자신들의 교육적 경험과 이를 통한 반성적 사고의 결과를 통해 생활지도의 영역과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장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지도하는 영역으로는 크게 기본생활습관, 예절생활, 안전생활 등 단체생활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반면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화한 학자들과 달리 진로, 여가 등의 영역과 내용 등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도하지는 않는 듯하였다.

### 가. 기본생활습관

기본생활습관이란 생활 전반의 행동양식을 익혀서 습관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아직 형성되어지지 않은 필요한 습관과 제거해야 할 습관을 충분한 반복의 연습을 통하여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오남·노명희·윤은중, 2000).

또한 학급 별 인원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본교 일곱 분 원로교사들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생활지도 영역 또한 기본생활습관 길러주기였다. 일곱 분 원로교사 중에서 특히 기본생활습관을 강조하는 분으로 P교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주로 기본생활습관에 관심을 갖고 해마다 3월이면 이러한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한다고 말하였다.

P교사: 생활지도가 뭐 어느 한 분야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이 이루어진 후에 기타 여러 영역의 생활지도가 고르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면접/2007/09/11)

P교사는 또한 생활지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기 초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담임교사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에는 담임이 약간이라도 느슨해지면 금방 알아차리고 다시 헤이한 행동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일관된 생활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 나. 예절생활

김득중(1997, 재인용)은 예절을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오랜 생활관습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방법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인 생활규범이라고 하였다.

초임 때에 비해서 생활지도의 기회가 더 줄어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하는 K교사는 다음과 같이 예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K교사: (중략) 초임 때에도 예절이라든가 질서 등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이들이 말을 더 안 듣고 별나고, 오히려 더 강조를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면접/2007/09/15)

그녀는 자신의 초임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에만 선생님이 있어서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었고 아이들이 자연히 교사에 대한 예절도 각듯했고 말도 잘 들었지만 요즘은 온통 ‘깔린 게 선생’ 이고 아이들도 담임교사의 말을 잘 안 들어서 생활지도 하는 것이 갈수록 힘이 든다고 하소연 한다. K교사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더욱 교사가 중심을 잡고 아동들에게 기본예절이나 질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을 반복적으로 지도해서 몸에 베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다. 건강 및 안전생활

아동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성숙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아동이 완성된 인격체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해야만 한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은 교육의 지향할 인격의 도야가 결국 건강한 신체가 유지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충기, 2003).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안전생활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점은 강조의 원인이 교사의 책무성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원로교사들의 초임시절에도 아동들의 역동적인 학교생활 장면 속에서 자질구레한 안전사고 등이 존재했었는데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 한 후 학교나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는 반면에 요즘에는 그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로 전과된다는 사실이었다. 다음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L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L교사: 체험학습을 가서 아이가 다치거나 하면 아무리 산 공부가 되어도 도로아미타불이예요. 애가 다치면 다 필요 없는 거죠. 학부모들은 그동안 담임교사가 얼마나 성심껏 아이들을 지도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면접/2007/10/04)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영역이 안전문제라고 시종 일관 주장하는 Y교사는 아동들이 위험한 장난을 치거나 소란을 피울 때, 복도를 마구 뛰어다닐 때에는 정말 신경이 곤두선다고 하였다. 따라서 타 연령대에 비해 안전생활 실천 행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습동기가 강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경향이 강한 아동들에게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꾸준히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면 전 생애 동안 안전한 생활을 유지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곱 분 원로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거의 매일 행하고 있는 생활지도의 영역과 내용은 원로교사 각자의 선 경험과 교육관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도하고 있는 생활지도 영역에는 기본과 기초를 중시하여 기본생활습관, 생활예절, 안전생활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즘 사회이슈가 되고 있고, 담임교사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는 따돌림 문제를 포함한 교우관계 등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에 진로지도나 여가지도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거나 지도를 한다고 해도 일회성에 그치는 등 지속적인 지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3. 생활지도의 방법

사회의 복잡화, 가정의 교육기능 저하 등으로 많은 아동들이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그리고 삶을 관리하는 기술을 체득하기 힘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생활지도 활동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오늘날의 학교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는 측면에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자신이 살아왔던 시대의 문화나 정서와 너무나도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심층면접과 수시로 이루어진 대화자료를 통해 나타난 일곱 분 원로교사들의 견해는 해마다 자신이 담임하게 되는 아동들의 학년이나 특징, 학교교육 시책에 따라 생활지도를 하지만 해마다 주로 사용하는 생활지도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가. 학부모와 연계하여

생활지도를 학과지도와 대비시켜 하나의 큰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P교사의 경우에는 초임을 거쳐 경력교사의 시절에는 교사의 입장에서 행해진 생활지도를 했었다고 말하였다. 당장의 편안함과 눈에 보이는 효과를 위해서 때로는 체벌도 사용하고 강경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P교사: 담임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동료교사나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전 개인적으로 3월이 되면 생활지도 내용과 영역을 정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맡은 아이들의 처한 형편이나 가정환경 등을 먼저 알아봅니다.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요.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 생활지도 계획을 짜죠. (면접/2007/09/11)

그는 각각의 아동 이해의 바탕 위에 생활지도의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서 아동 이해가 생활지도의 기본이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꾸준히 교사가 먼저 본을 보일 때 아이들의 생활태도가 변한다는 다소 진부한 원론적인 이야기 같으면서도 오랜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말이어서 무게가 느껴진다.

#### 나. 예화를 중심으로

Lickona(1996)는 자녀와 학생들을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서는 훌륭한 모범사례를 자주 들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즉 한 사회나 문화가 제시하는 도덕적 행동이나 가치를 내면화하는데 예화를 통한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흔히 사용되어지는 예화자료란 교육적으로 아동의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자료들을 말한다.

L교사는 올해 3학년을 맡고 있어서 요즘에는 주로 훈화를 통하거나 안전사고 등 관련뉴스, 신문기사, 친구 선생님에게서 들은 다른 학교 이야기 등을 학년성에 맞게 적절하게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주로 들려준다고 하였다. 이야기나 일화 등을 학과 지도 시에도 자주 사용한다고 하는 L교사는 다른 학년을 담임할 때에도 생활지도 방법이 주로 이야기를 통해서 아동들의 마음의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L교사: 일화나 예화를 들려주면서 생활지도를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원래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일어났던 안전사고나 친구 선생님에게 들었던 훈훈한 사례 등을 이야기 해주면 아이들이 골똘히 들어요. 그리고 행동도 조금씩 변하는 걸 느끼구요. (면접/2007/10/04)

그녀는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약해지지만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은 새록새록 샘솟는다고 말한다. 젊은 시절에는 뭐든 빨리 고쳐보려고 하는 급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도 많이 줬다는, 그래서 요즘에는 더 느긋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다는 말 속에서 원로교사의 노련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 다. 상담을 중심으로

원로교사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한 생활지도 방법을 배울 기회가 적어 아동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생활지도에 힘쓰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다. 일찍이 Rogers의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Gordon의 ‘자율적인 인간 육성’, Glasser의 ‘성공적 정체감’ 등에서 생활지도시 상담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즉 아동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지를 가지며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생활지도시 집단상담이나 또래상담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과거에 자신이 지도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생각마저 든다는 G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G교사: 저는 상담교육을 받고 생활지도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생각해보면 내가 상담교육을 받고 나서부터는 우리아이들이 많이 행복해졌을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옛날에는 한 찰 매를 대도 마땅히 때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 매를 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면접/2007/09/18)

몇 년 전에 1년 과정의 상담양성 과정을 마치셨다는 G교사는 이 상담과정이 자신의 생활지도방법과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그는 상담교육을 통하여 그동안 수동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자신의 대인관계에 개선을 가져왔으며 아동들을 대할 때에도 좀 더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효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아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원로교사도 왜 남에게 뒤질 필요가 없지 않는가? 나이만 많다고 뒷짐만 지고 남들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난 봐요.” 30년 이상 교단에서 헌신하였으면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도 충분한 노하우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연구자의 생각을 무색하게 하는 말을 한다. 젊은 후배 선생님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G교사의 말에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말이 새삼 생각이 난다. 또한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원로교사의 마음도 느낄 수가 있었다.

#### 라. 칭찬을 통하여

이재명(2003)은 칭찬은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특히 아동들에게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변화에 촉매가 되며 상처 받은 마음의 치유제가 될 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는 윤활유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찬식(2000)은 주변의 의미 있는 존재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관심과 신뢰를 받는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감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형성하게 되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칭찬은 아동의 긍정적인 가치감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성과 올바른 인격을 기르는데 중요하다. K교사는 친구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지도 방법을 돌이켜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아동생활지도를 할 때에도 각각의 아동의 개성과 특성에 맞는 격려와 칭찬을 자주한다고 말하였다.

K교사: 근데 30년 교직생활을 돌이켜보면 역시 아이들을 칭찬해주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았어요. 어떤 한 아이를 칭찬해주면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왔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누가 그랬지?’ ‘아무개가 그랬어요.’ ‘그럼 야,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그 아이를 칭찬하면 다음 날 아침에 오면 또 다른 아이가 그 창문을 열어 놓고 있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면접/2007/10/01)

Rogers는 교사가 아동에게 진지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 특히 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교과학습은 물론 생활지도도 포함한 정의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교사와 아동의 상호관계가 허용적이고 자유로울 때 아동은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로이 표현하며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 일곱 분 원로교사 각각의 생활지도 방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원로 교사들은 현재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생활지도 방법은 자신의 초임 시절을 거쳐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방법들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와 학부모의 인식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겠다. 대부분의 원로교사들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필요한 생활지도 방법을 교육받지 못하여 아동들의 잠재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시켜 유능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지도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다. 달라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대처해야할 방법도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초임교사 못지않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4. 생활지도 경험을 통한 원로교사의 삶의 의미변화

##### 가. 갈등의 경험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아우르는 전 분야에서 변화의 속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찔하게 만들 만큼 무서운 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사람들도 변한다.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양식도 변하기 마련이다. 자신들이 성장했던 시대의 생활상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생소하기까지 한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일곱 분 원로교사들의 대부분은 정도는 다르지만 교사-아동, 교사-학부모, 교사-교사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Y교사: 우선 아이들이 내가 초임시절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요. 애들이, 가만있자. 그 아이들이 지금은 40대 초반이 되었겠네. 그 아이들은 일단 내 앞에서는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안 그래요. 내가 꾸중을 해도 지가 분이 안 풀리면 옆에 애랑 싸운다니까! 생활지도 기술은 늘게 없는데 아이들은 점점 다루기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나 학부모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면접/20071/10/02)

원로교사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생활지도로 인하여 고충을 토로하였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되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부족으로 느끼고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생활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원인을 대부분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학부모의 인식의 변화, 여기에 맞물려 과거 교사의 권위에 순종적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급변하는 사회체제 속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과거 생활지도 경험을 재구성하여 현재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용하여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원로교사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는데 비하여 무한경쟁,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등 자신이 성장해왔던 시대적 배경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현실 속에서 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원로교사들은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교사-교사 등의 인간관계가 삭막하고 살벌하다고까지 하면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 나. 관계적 삶의 경험

대부분의 원로교사들이 초임시절에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을 무기로 일방적인 생활 지도를 하였다고 한다. 넘치는 의욕이나 열정에 비하여 실제 교육경험의 부족과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지적·경험적 이해 부족으로 아동 각자의 요구나 이해를 고려하지 못하여 생활지도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P교사: 지금은 뭐랄까 다소 느긋해졌다고 할까요? 아이들 입장에서 뒤집어 생각해보려고 노력도 하구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

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사 위주의 생활지도에서 아이들 입장을 더 고려하는 생활지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면접/2007/09/11)

K교사: 초임 때에는 그야말로 하나의 열정, 열정? 지바람에 몸속에서 힘이 나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아이들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워요. 애 먹이는 애들까지도. 그게 사랑일까? 그런 감정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면접/2007/10/01)

대부분의 원로교사들은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생활지도 경험을 돌이켜 헤아려 보는 반성적 사고과정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지도의 개념 형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초임시절에는 아동들을 바라볼 때 그저 미성숙한 존재,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그래서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 교사인 자신들은 다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끌고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요즘에는 교육대학에서 생활지도나 아동특성 이해에 관한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지만 원로교사들은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사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바로 교육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교과지도적인 면보다는 아동들의 생활지도면에서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시행착오와 자신들의 수십 년 간의 교육경험을 반성적으로 고찰한 분들은 이제서야 교사인 자신과 자신이 담임한 아동들 사이의 관계 맺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단순히 교사로서의 권위로만 밀고 나갔던 생활지도의 방법을 서서히 내려놓고 아동 각자의 고유성과 특성 등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 다. 평생학습자로서의 경험

원로교사 한 분이 “할아버지도 손자한테 배울게 있다.”라고 말할 때 연구자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30년의 교직 경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후배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자문을 구한다는 그 말에 평생 학습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교사로서의 가장 큰 보람은 자신이 지도하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 말도 생각이 난다. 단순히 월급을 많이 주는 것만이 원로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로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로로서의 정당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즉 자신들이 원로교사에 걸 맞는 역할을 통해서 교육활동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저 뒷짐이나 지고 원로끼리 모여서 시간이나 보내는 생활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초임교사와의 멘토링 제도나 원로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경험과 소신을 활발히 표출하고 그것을 교육현장에 반영하는 다양한 교육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IV. 연구자 인식의 변화

앞에서도 밝혔듯이 해석학적 연구는 철저하게 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경험한 세계를 가능한 한 그들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일곱 분 원로교사와 심층면접을 하고 그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그동안 연구자가 형성하고 있었던 원로교사에 대한 선입관 내려놓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각 2차례씩 면접을 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수업을 마친 후 교실을 찾아가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로교사에 대해 연구자가 가졌던 인식들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고 있었다.

### 1. 원로교사는 정체되어 있는가?

교육경력이 16년 차인 연구자의 눈에 비친 원로교사는 늘 현상유지에 급급해하는 모습이었다. 하루하루 아이들이 별 사고 없이 집에 가면 자신들의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학년 업무나 행사 등에는 그저 뒷집이나 지고 있으면서 업무나 일은 모두 젊은 교사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더군다나 직원회의나 각종 협의회 때에 젊은 교사들의 새로운 제안에 원로교사가 한 마디 거들어 주면 좋을 상황에 그저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는 ‘보신주의’에 빠진 듯한 자세나 학교의 새로운 정책이나 시범학교운영 신청 등에는 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현상유지와 자신의 무사평안만을 챙기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실망스럽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지난 세 달 동안 면접과 수시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서 본 연구자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사회변화 속도에 대처해 가고자 몸부림치는 원로교사의 갈등과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느릿느릿 해보이고 수업만 마치면 컴퓨터 바둑이나 인터넷 뉴스만 보면서 퇴근시간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원로교사를 멀리서 볼 때 가졌던 그 안일함이나 답답했던 정체감이 가까이 다가서서 바라볼 때에는 청년기 못지않은 강한 역동과 빠르게 변해가는 교육현실을 따라잡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전해져 왔다.

### 2. 원로교사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가?

연구자가 가졌던 두 번째 선입관은 원로교사가 승진을 못했다는 패배감에 젖어 어느 정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거란 생각이었다. 멀리서 보여지는 원로교사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 생각하니 희망이 없어 보여 '나도 20년 후에 저렇게 초라한 학교 생활을 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부터 뭐라도 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과 계획을 세워보기도 했었다. 이걸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젊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남에게 무시 받지 않으려면 승진해야 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될 수 있으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출세를 해야지-에 젖어 들었던 탓이기도 하다.

C교사: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는데 승진문제에 걸려서 한 번 실패하고 나니까 더욱 그렇고…….(초라해지고란 말씀을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 (면접/2007/09/28)

S교사: 이유야 뭐, 보람은 있는데 큰 변화가 없고, 교사는 교감, 교장 아니면 평생 교사잖아? 또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면접/2007/09/27)

물론 C교사의 말처럼 처음에 승진에 실패하고 나니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고 허무해지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잠시 잠깐의 방황을 거친 후 C교사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4년이나 더 남았는데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아깝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전임지 학교 교장을 만났는데 글썽 사람이 얼마나 초체하게 변했는지 말이야. 교장은 퇴임하면 더 초라해진다니까요. 나처럼 평교사는 지금도 이렇게 동학년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워크아웃도 갈 수 있고 너무 좋잖아? 교장이 되면 무게 딱 잡고 있어야 하니까 외로운 거야. 퇴직을 해도 과거에 교장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잘 어울리지도 못해.”(대화자료/2007/10.8)

원로교사는 승진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소극적이고 폐쇄적 일거라고 지레 짐작했던 연구자는 승진문제가 물론 큰 이슈이기는 하고, 특히 여자교사보다 남자 교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좌절했다고 자신의 학교생활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교육경험을 평가절하만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3. 원로교사는 더 이상 배우기를 포기했는가?

연구자는 원로교사들이 나이도 연로하고 체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교육사상이나 교수법, 생활지도 등에 대해서 무관심할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채 본 연구를 시작했었다. 하지만 정년이 몇 년 남지 않는 지금도 교육과정 관련 책이나 상담 등의 책을 수시로 읽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G교사, “할아버지도 손자한테 배울게 있다.”라고 말하는 L교사, ‘연구는 교사의 양식이다.’라고 생각한다는 K교사, 생활지도는 “교단을 떠나는 순간까지 영원한 숙제일거라.”는 P교사 등 대부분의 원로교사들은 아직도 꺼지지 않은 배움에의 열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V. 논의 및 결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물질적 풍요와 사회문화적 발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인식 구조의 틀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이러한 물질주의, 개인주의, 능률주의, 무한경쟁 등의 사고체계는 빠른 속도로 교육 현장에도 불어 닥치고 있는 실정이며 한 두 자녀 가정에 자라나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는 오늘날의 아동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부모들의 학교나 교사에 대한 인식 또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자신의 자식이 맞았다고 분해서 다짜고짜 학교에 와서 담임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문기사(한국일보,2007,11.06/연합뉴스,2007,11.07)가 심심찮게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요즘이다. 이렇듯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초등학생들의 지나친 이기주의와 웃어른에 대한 예의 없음의 행동은 오늘날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생활지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원로교사들의 생활지도 경험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30년이 넘는 그들의 살아있는 생활지도의 경험이 형성한 생활지도의 개념과 생활지도의 영역과 내용 및 방법 등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심층면접 자료, 대화자료, 문헌연구 등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원로교사들은 생활지도를 아동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전적으로 배려하고 지지해주며,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전인적 인격형성을 위해서 아동의 생활전반에 걸쳐 지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생활지도의 영역과 내용에 있어서는 김충기(2003), 이재창(2005), 허승희(2003) 등 많은 학자들이 강조한 진로나 여가선용의 영역과 내용은 덜 강조하고 있었고 주로 하루하루 학교생활과 당면한 기본생활습관, 예절, 건강 및 안전생활 등의 면에 집중적인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원로교사들이 30년이 넘는 자신들의 교육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생활지도 영역과 내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원로교사들이 행하고 있는 생활지도 방법들에는 학부모와의 연계, 예화의 활용, 상담, 칭찬 등을 통하여 아동들을 생활지도하고 있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손 위에 올려놓고 키운다.'는 한 원로교사의 말이 대변해 주듯이 한 두 자녀 가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아동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학부모와 공유하고 상시 대화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 때 효과적인 아동생활지도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었다.

원로교사들의 생활지도 경험의 해석학적 탐구를 하면서 연구자 또한 그동안 연구자

가 형성해왔던 원로교사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 교육경력 16년 차인 연구자의 눈에 비쳐지는 원로교사들은 학교현안들이나 후배교사들을 위해서 한 마디 해주거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에도 늘 뒷짐만 지고 있다가 자신들의 안위나 복지와 관계되는 일에는 핏대를 올리는, 늘 현상유지에 급급해하며 '보신주의'에 젖어 있는 정채된 집단으로,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여 늘 패배주위에 사로잡혀 있고, 새로운 교육사조나 흐름에 '복지부동'하는 분들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관의 대상들이었다. 하지만 일곱 분 원로교사들과 마주하고 그들의 30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들으면서 그 동안 본인이 형성해 온 원로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들이 다분히 주관적이고 편협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한다. 격동의 시간을 통과하여 오늘에 이른 원로교사 또한 교육전문가로서 인재양성의 사회적 책임을 가진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원로교사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지식과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고 그들의 가치관 및 교수-학습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원로교사들이 자신의 풍부한 교육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여 새로운 교육정보를 흡수하여 보다 보람되고 자신감 있는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 전적으로 면접에 의존하였다. 교사의 입장에서 그려진 원로교사들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아동과 교사의 상호역동성이나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장면을 직접 관찰하지는 못했다. 또한 교사의 생활지도를 받아들이는 아동들의 생생한 모습 또한 관찰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역동적인 생활지도 장면을 충실히 그려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교사의 생활지도를 받아들이는 아동의 생생한 모습을 관찰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관찰자가 되어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아동 상호간의 역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구희완 역(1992). **Schleiermacher 해석학**. 서울: 양서원.  
 권형자(2005). **생활지도 및 상담**. 서울: 태영출판사.  
 김오남·노명희·윤은중(2000). **아동생활지도**. 서울: 형설출판사.  
 김이순(1999). 비만 청소년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2(2), 243-261.

- 김충기(2003). **생활지도와 상담**. 경기도: 한국학술학정보(주).
- 나홍하·변용철·김대현(2007). 초등학생이 일제시험 기간 동안에 겪는 경험의 실체: 근거이론 방법론적 접근. **초등교육연구**, 20(2), 113-138.
- 박교선(2006). **학생생활지도 - 이제는 변해야 한다**. 서울: 교육과학사.
- 백승현(1993).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과 인간학. **사회과학연구지**, 19(1), 57-81.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신윤호·오만록(2005). **생활지도와 진로개발**. 서울: 교육과학사.
- 안성권(2005). 근대독일 해석학의 탄생과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인문과학논집**, 제31호, 51-74.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 엄세진(2005).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상동(1998). 아동의 바른생활태도 습관화를 위한 기본생활예절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제12호, 297-308.
- 윤병희 역(1993). **해석학과 지식 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윤용희(2003). 초등학생 저학년 아동의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 교육대학원.
- 윤철호 역(2003). **해석학과 인문사회학**. 서울: 서광사.
- 이근호(2005). 달과 손가락: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해석학적 현상학에 관한 소고. 초빙강연 발표 자료.
- 이길우·이선관·임호일·한동원 역(2003). **진리와 방법 I**. 서울: 문학동네.
- 이달호(1983). 새 생활지도에 관한 일고. **논문집**, 16(1), 237-256. 서울교육대학교.
- 이명숙(2002). 심층면접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 18(1), 215-241.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이시용·정환금·허승희·홍종관(2003). **초등학교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 이재창(2005).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문음사.
- 이정희(2004).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이한우 역(1999). **가다머**. 서울: 민음사.
- 이한우 역(1993).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 정용부·고영인·신경일(1998).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학지사.
- 정종진(1998).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키워주기**. 대구: 장원교육.
- 조극훈(2006). **가다머가 들려주는 선입견 이야기**. 서울: (주)자음과 모음.
- 진권장(1999). 교육경험의 의미에 관한 해석학적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2(1), 123-169.
- 최창집(1999). 과학주의 한계와 해석학적 접근방법. **지방과 행정연구**, 11(1), 81-97.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행정연구소.

- Ellis, J. L.(1998). *Teaching from understanding: Teacher as interpretive inquirer*.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 Ellis, J .L.(1997). Workshop on qualitative research.
- Halas, J. M.(1999). Physical education/activity for troubled youth at an adolescent treatment center: An interpretive case study. The University of Alberta, Doctoral Thesis.
- Mary Haase.(2002). *Writing in the dark: Phenomenological studies in interpretive inquiry*. Ontario, Canada: The Althouse Press.
- Mishler ,E. G.(1986).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New York: Praeger Special Studies.
- Morse, J. M.(1994).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Neumann, A & Peterson, P. L.(1997). *Learning from our lives: Women, research, and autobiography in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Seidman, I. E.(1991).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Smith, D. G.(1991). *Hermeneutic inquiry: The hermeneutic imagination and the pedagogic text*.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Weber, S. J.(1986). The nature of interview. *Phenomenology Pedagogy*, 4(2), 63-72. The University of Alberta.

## Abstract

# An Interpretive Inquiry into the Guidance Experiences of Senior Elementary Teachers

Lee, Jeong-Hee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losely to explore the guidance experiences of senior elementary teachers who have had over 30 years of teaching experiences in elementary school based on interpretive(or hermeneutic) inquiry. The entry research question was 'What are the guidance experiences of senior elementary teachers like?'

Seven senior elementary teachers working for O elementary School in G c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voluntarily. Each participant was interviewed twice in a consecutive manner. 14 periods of interview were completed all together and each period took about 40-60 minutes.

In conclusion, this study conceptualized the guidance experiences of the senior elementary teachers(participant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s of guidance held by the participants were conceptualized as 1) supporting and caring activity helping students to lead joyful school life, 2) assisting activity helping students to grow on good basic life habits, 3) character building activity helping students to lead integrative growth. Second, the fields and contents of guidance held by the participants were conceptualized as basic life habits, manners, and health & safety. Interestingly, these concepts were evolved in connection with their personal, practical teaching experiences rather than in-service teacher education. Third, the guidance methods frequently used by the participants were co-work with parents, exemplary storytelling, counselling, and praise. The participants applied these method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grade, individual difference, and school curriculum policy to some degree. Fourth, the participants have experienced a lot of struggles with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in doing their guidance practices throughout the whole teaching career. Their guidance

experiences commonly shifted from more teacher-centered or authoritative to more student-centered or relational way as their teaching years accumulated. Interestingly, all the participants more or less lived as lifelong learners to create their own right space as senior teachers in today's competitive and challenging landscape.

This study strongly suggests that responsible teacher education can play a great role of enabling senior teachers to cope with guidance issues successfully. Compared with the speedy social change, the teacher education in Korea had been so authoritative, provider-based, subject-based until recently and it have not met the needs and wants of the elementary teachers in field. This trend has significantly hindered them from catching up with the needs of the speedy social change in terms of contemporary guidance issues.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the data is solely collected based on interview. So, an observational research is strongly suggested in order to uncover the situated understanding of the guidance experiences of elementary senior teachers.

Key-words: guidance experience, senior teachers, interpretive(hermeneutic) inquiry.